

조선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민교씨 경향신문 신춘문에 평론부문 당선

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민교<사진>씨가 '2020 경향신문 신춘문에'에 당선됐다.

22일 조선대에 따르면 김민교씨는 '이소'라는 필명으로 2020 경향신문 신춘문에 평론부문에 평론 <남성 성장소설을 넘어서: '위안부' 피해자를 재현한다는 것>을 출품해 당선됐다. 시상식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됐다.

김씨의 당선작은 소설 작품 중 '위안부 피해자' 재현 서사가 품고 있는 문제적인



지점, 즉 타인의 고통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서사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.

김씨는 약학과를 졸업하고 과거에 약사로 일했다. 그는 암병동에서 일하면서 안타까운 비극에 무대지는 삶이 힘겨웠다.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김형중 교수의 강연을 인상 깊게 들었다. 이후 그

는 조선대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말했다.

그는 위안부 피해자를 재현한 소설을 박사 논문 주제로 삼았고, 이번 당선작은 논문의 일부다.

김씨는 "광주민주화운동, '미투운동' 등 사회적 사건을 재현한 문학에 관심이 많다. 재현이나 재현 불가능성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"고 소감을 말했다.

차승기조선대 국어국문학과 학과장은 "김민교학생이 작품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를 통해 큰 성과를 냈다"고 말했다.

/김경태 기자 kkt@namdonews.com